

# 남원 방언 문법 형태와 사용 양상 변화 연구\*

-세대 차이 및 방언 의식 변화에 따라-

류성기 \*\*

## || 차례 ||

1. 서론
2. 문법 형태 사용 현상
  - 2.1. 대명사      2.2. 조사      2.3. 종결어미와 경어법
  - 2.4. 연결어미    2.5. 시제      2.6. 부정
  - 2.7. 사동, 피동 접미사      2.8. 보조 용언      2.9. 부사
3.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4. 결 론

### [국문초록]

남원 방언의 문법 형태는 무엇이며, 이 문법 형태 사용 양상이 세대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했고, 또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10대 초 어린이와 60대 이상의 어른들의 표준어와 사투리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남원 방언 문법 형태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너그’처럼 일부 다른 형태도 있고, ‘많이’가 ‘겁나게’처럼 다른 형태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 형태는 60대 초 이상에서는 방언 형태가 주로 쓰이나 10대 초에서는 방언 형태보다는 표준어 형태와 같은 형태가 주로 쓰이고 있다. 세대적 차이에 있어 좀 특이한 점은, 체계적인 면에서 볼 때, 종결형에 나타나는 경어법은 남원 방언 경어법 체계가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격식체 체계 ‘아주 낮춤-예사 낮춤-(예사 높임)-아주 높임’과 비격식체 ‘두루 낮춤-두루 높임’의 체계를 60대 초 이상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나 10대 초에서는 격식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비격식체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편이성 현상은 부정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10대 초에서는 부정 형태 ‘-지 않-, -지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sgryu@cue.ac.kr

못-'과 같은 형태를 쓰지 않고, '안, 못'과 같은 단형 부정 형태만 쓰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은 어린이들이 노인들보다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싶은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는 사투리보다는 표준어에 대한 좋은 의식,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투리는 필요할 때 조금 쓰고, 가급적 표준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주제어 : 전북 남원 방언, 문법 형태, 문법 형태 변화, 표준어, 방언, 표준어와 방언 의식, 세대 차이

## 1. 서론

이 논문은 전북 남원시 방언의 문법 형태<sup>1)</sup>와 이 형태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이다. 그런데 남원 방언은 남원시 전 지역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방언 사용 확인 대상자 최동렬 씨에 의하면 남원의 방언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경상도 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원시 운봉읍,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지역, 다른 남원시 지역과 높은 산을 경계로 삼고 있어 생활권이 남원보다는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에 속하여 있는 남원시 대강면 지역,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 있다.<sup>2)</sup> 그래서 본 연구자는 남원 지역 고유의 방언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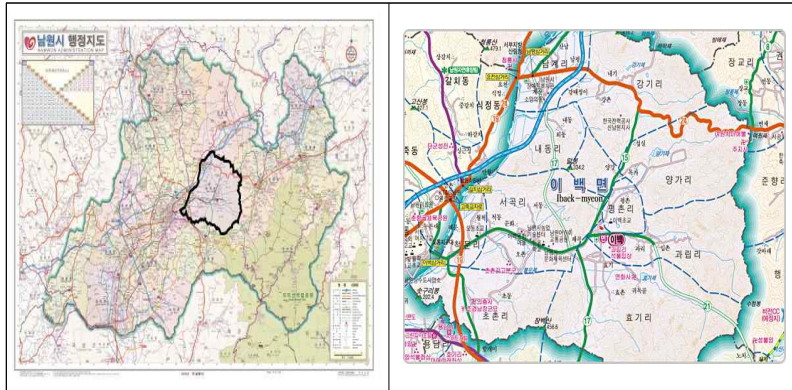
1) 여기에서 문법 형태는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과 관련된 요소인 일부 품사(대명사, 부사)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1980),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제5편 문법』 질문지 체계에 따랐기 때문이다.

2)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소강춘(1983)을 참고로 하여 제시해 놓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남원의 방언에 의하면 남원 지역어는 크게 세 방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라북도의 핵방언권에 속하는 남원시 사매면과 덕과면, 보절면은 임실군 오수면과 인접하고 있어서 전라북도 방언권의 요소를 보이는 지역이고, 주생면·금지면·송동면·수지면·대강면은 전라남도 구례군·곡성군과 접하는 지역으로, 전라남도 방언권의 영향 하에 있는 지역이며,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은 경상남도 함양군과 접촉 지역으로 경상도 방언의 간섭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남원의 방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도의 방언 요소를 고루 반영하고 있는 특

구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영향을 덜 받은 남원시 이백면 지역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아래는 조사 대상이 된 남원시 이백면 지역과 이백면 평촌리 등의 지역에 대한 지도이다. 왼쪽 지도는 남원시 지도로서 굵은 선 표시 지역이 이백면이다. 오른쪽 지도는 이백면 지도이다.

<전북 남원시 이백면과 이백면 평촌리의 위치>



지금까지 이 남원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의 문법 형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내지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조형순(2008)의 남원 방언을 중심으로 한 전북 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5-1’의 남원 전체 지역의 설화 자료, 최명희의 ‘혼불’, ‘이태영 교수가 쓴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다. 그래서 조형순(2008)은 본 논자가 견지하고 있는 남원 핵방언, 곧 주변 지역의 영향을 덜 받은 남원 핵방언<sup>3)</sup>에 대한 연구와는 자료에 있어 차이가

이한 지역이라고 하였다.

3) 핵방언이란 이태영(2011:427-449)에 의하면 타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방언을 말한다. 이태영(2011:428)에 의하면 전북 방언의 핵방언으로는 전주, 완주 일부, 김제, 임실, 진안 일부인데,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남원 방언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방언과 접촉하고 있어 남원 방언은 전북 방언 전체적인

있다.<sup>4)</sup> 그리고 조형순(2008)은 문법 범주를 상대높임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법 형태 전반적인 것이고, 또 그 문법 형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쓰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서 조형순(2008)과는 차이가 있다. 남원 지역에 대한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소강춘 외(2010)의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 음운, 문법)’에 제시된 바 있다. 거기에서는 남원시 보절면 지역(조사 대상자: 최연순)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본 논자가 조사한 연구 내용 외에도 남원 핵방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소강춘 외(2010)의 남원시 보절면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공식적 관점에서의 남원 방언 문법 형태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있지만, 문법 형태의 세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통시적 연구는 없다. 언어는 시대적, 지역적, 제도적 영향으로 많이 변해 가는데, 남원 방언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그리하여 논자는 남원 방언의 문법 형태에 대한 것을 문법 형태 범주별로 정리하고, 남원 방언의 문법 형태가 세대 차이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sup>5)</sup>

방언 조사는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하였고, 그 이후 몇 차례 보충 조사를 하였다. 제보자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보자 인적 사항>

---

관점에서 보면 접촉 방언이라 하였다. 그러나 논자는 그러한 접촉 방언적인 남원 지역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원시 이백면은 경상도나 전남도의 영향을 덜 받은 남원 지역의 핵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60대 이상 방언 사용 확인 대상자 최동렬 씨에 의해서 확인된 바다.

- 4) 다른 지역의 방언의 영향을 받은 언어라고 하여 남원 언어(방언)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남원 방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의 영향을 안 받았거나 덜 받은 방언이 연구 대상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 5) 이 연구는 류성기(2013, 2014, 2016)에 이은 연구로서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 방언의 문법 형태 및 세대 차에 의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비교하고, 고찰해 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래서 류성기(2013, 2014, 2016) 체계표에 따라 고찰해 볼 것이다.

순위	이름	나이	학력	출생지	현 생활지	성별
1	안태순	85	무	이백면 평촌	이백 평촌	여
2	이상례	79	무	이백면 내기	이백 평촌	여
3	최성범	85	무	이백면 효기	이백 평촌	여
4	김도남	76	무	대산면 대곡	이백 평촌	여
5	김순임	78	무	이백면 내기	이백 평촌	여
6	김금남	83	무	주천면	이백 평촌	여
7	황정임	82	국중퇴	수지면 남창	이백 평촌	여
8	임영월	84	국졸	이백면 평촌	이백 평촌	여

이들은 현재 조사 대상지인 남원시 이백면 평촌 부락에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의 출생지는 8명 중에 5명은 같은 면이고, 3명은 남원시의 대산면, 주천면, 수지면으로 같은 방언권에 속한 지역에서 시집 왔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은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방언 문법 형태 사용 비율에 대한 조사는 2016년 4월 17일에 60대 이상 사람들의 방언 사용 확인 대상자 최동렬 씨를 만나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동 확인 대상자는 초등학교를 남원시 주생면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원 시내 소재 학교에서 졸업한 후 군대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남원에서 생활을 한 분이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행정계통으로 남원 군청(시청), 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여 남원 토박이며, 나아가 행정계통상 주민들을 많이 접하여 주민들의 언어생활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퇴직을 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남원의 언어, 문화 등에 관심과 학식이 높은 분으로 남원 60대 이상 사람들의 언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이다.

10대 초반 어린이들의 방언 사용 비율 확인 대상자는 박세현, 권희선, 송지영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남원시에 소재한 남원 용성 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남원에서 생활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조부모님들과는 함께 살지 않은 학생들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단지 이들만의 언어 사용 비율이 아니라 학교나 동네 친구들과의 언어 사용에서의 방언 사용 비율이기 때문에 조부모와 같이 살고, 안 사는 것이 큰 변수는 아니다.

## &lt;방언 사용 비율 확인 대상자&gt;

(1) 60대 이상 사람들의 방언 사용 확인 대상자.

이름: 최병렬(61세, 남) 학력( 고졸 ) 출생지: 남원시 주생면 주 생활지: 남원시내

(2) 10대 초 어린이들의 방언 사용 확인 대상자.

순위	이름	학력	출생지	현 생활지	성별
1	박세현	초등학교 6학년	남원 시내	남원 시내	여
2	권희선	초등학교 6학년	남원 시내	남원 시내	여
3	송지영	초등학교 6학년	남원 시내	남원 시내	여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표기 방법으로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1.이하에 제시된 각 표의 ‘방언 형태’ 칸에 제시된 ‘x’는 방언 형태에 처음부터 없는 형태, ‘방언 사용 비율’ 칸에 쓰인 ‘x’는 해당 방언 형태가 사용되지 않고, 해당 표준어 형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x(50)’은 원래 방언 형태에는 없는 형태이나 해당 세대에서는 50%의 사람들이 해당 방언을 사용하는 형태이다. ‘(느그)’처럼 ( ) 속의 말은 원래 안 썼으나 후대로 오면서 새로 쓰기 시작한 말을 나타낸다. 그리고 ‘(100)’는 방언형에는 없었지만 60대 또는 10대에서 새로 100% 다 쓴다는 것을 나타낸다. ‘x(생략)’은 원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략되어 안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비율 ‘0’%는 원래 방언 형태는 있었지만 60대 또는 10대에서 전혀 안 쓰고, 대신 표준어 형태를 100%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1.4.의 ‘이것’의 방언 형태 ‘이거’는 60대에서는 100% ‘이거’로 사용하지만, 10대에서는 ‘이거’를 0% 사용한다는 것으로 대신 표준어 형태 ‘이것’을 100%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1.2.의 ‘너희’의 방언형은 ‘너그’이다. ‘너그’는 60대에서는 50%가 ‘너그’로 쓰고, 나머지 50%는 표준어 형태인 ‘너희’로 쓴다는 것이고, 10대에서도 ‘너그’는 0% 사용하고, 대신 ‘너희’를 100%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2.1.3.의 표준어 ‘이이’는 남원 방언에서는 ‘여’인데, 10대, 60대에서 0%라고 하였는데, 이는 두 세대 모두에서 ‘여’를 안 쓰고 표준어 ‘이이’를 100%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문법 형태 사용 현상

### 2.1. 대명사

#### 2.1.1. 1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 대명사	일인칭	나 밭에 갔다 올 게	나	100	100	나	나 밭에 갔다 오께.
		내가 가요.	내	100	100	내	내가 가요.
	단수	저요. 저 갈게요.	저	100	100	저	저요. 저 가께요.
		제가 갈게요.	제	100	100	제	제가 가께요.
	일인칭	우리가 가요. 응?	우리	100	100	우리	우리가 가요. 이?
		우리들이 갈게요.	우리들	100	100	우리들	우리들이 가께요.
	복수	저희가 가려오.	저희	100	100	저희	저희가 갈라요.
		저희들이 갈게요.	저희들	100	100	저희들	저희들이 가께요.

1인칭 대명사 ‘나, 내, 저, 제, 우리, 우리들, 저희, 저희들’은 남원 방언에서도 표준어와 같은 형태가 쓰이고 있고, 60대 이상과 10대 초반 사람 모두에게 100%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 2.1.2. 2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 대명사	이 인 칭	너는 뭐 하느냐, 지 금?	너	100	100	너	너는 머 허냐, 시방?
		네가 그것을 했냐?	네	100	100	니	니가 그것을 했냐?
		이것은 네 것 아니야?	네	100	100	니	이건 니 거 아냐?
	단 수	이것이 자네 것인가?	자네	100	x	자네	이거이 자네 거인가?
		이것이 당신 것이야?	당신	100	x	당신	이거이 당신 거여?
	이 인 칭	이것이 너희 것이냐?	너희	50	0	너그	이것이 너그 거이냐?
				(50)	0	(느그)	(이것이 느그 거이냐?) (60대 확인자의 말)
	복 수	너희들끼리 노느냐?	너희들	100	0	느그들	느그들 꺼지 노냐?

2인칭 대명사 중 표준어 ‘너, 자네, 당신’은 남원 방언에서도 같은 형태로 쓰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 ‘네’는 남원 방언에서는 ‘니’로 쓰고 있고, ‘너희, 너희들’은 ‘너그, 느그들’로 쓰고 있다. 이러한 방언 형태는 60대 이상에서 ‘너희’를 제외한 모든 형태를 그대로 쓴다. ‘너희’는 ‘너그’와 ‘느그’로 각각 50%씩 쓰고 있다. 그런데 10대 초반에서는 ‘너, 니’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쓰지 않고 있다. ‘자네, 당신’은 아예 쓰지 않고<sup>6)</sup>, ‘너그(느그), 느그들’은 표준어 ‘너희, 너희들’로 쓰고 있다.

### 2.1.3. 3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 대명 사	삼인 칭	이이가 누구냐?	이이	0	0	여	여가 누구테/누구대?(10대 ‘애’ 사용)
			100	0	여그	여그가 누구테/누구대?	
	대명	그이가 누구냐?	그이	x(50) (50)	x	x (그이)	(60대 ‘그이’ 사용 확인)(10대 ‘개’ 사용)

6) ‘자네, 당신’은 10대의 언어 사회에서는 아직 발달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	저이가 누구냐?	저이	(50)	(100)	(그분)	(그분이 누구테/누구대?)(10대, 60대 '그분' 사용)
			50	x	저	저가 누구테?(10대 '재' 사용)
		(50)	x	(저 양반)	(저 양반이 누구테?)(60대 '저 양반' 사용)	
	그는 어디 갔느냐?	그	x	x	x	
			x	x	x	
	그녀는 어디 갔느냐?	그녀	x	x	x	
x			x	x		
재귀대명사	자기가 제일 잘 난 체 해.	자기	100	30	지	지가 제일 잘 난 체 해.
			x(50)	x	x	
	아버지는 당신께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50)	x	(당신)	(당신이 겠 잘 한다고 생각해) (60대 '당신' 사용)

3인칭 대명사 ‘이이, 저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남원 방언 3인칭 대명사는 ‘여/여그, 저’가 있다. 이들은 지시대명사이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도 같이 쓰는 형태이다. ‘그이’에 대응하는 남원 방언은 없다. 그러던 것이 60대 초반 확인자는 ‘그이’로 쓰는 사람들이 50% 된다고 하였다. 60대부터 ‘그이’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이’ 대신 ‘그분’이라는 말도 60대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10대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다. ‘저이’의 방언 형태 ‘저’는 ‘저 양반’이라는 말과 더불어 50%씩 쓰고 있다고 하였다. 10대 초반에서는 ‘저’, ‘저 양반’ 모두 안 쓰고 있다. ‘이이, 그이, 저이’ 대신에 ‘애, 개, 재’가 쓰인다고 하였는데, ‘애, 개, 재’는 사실 ‘이 아이, 그 아이, 저 아이’의 준말이기 때문에 ‘이이, 그이, 저이’에 대응되는 말은 아니다. ‘그, 그녀’는 방언 형태도 없고, 60대 이상과 10대 초반에서도 안 쓰고 있다. 재귀대명사 표준어 ‘자기’는 ‘지’로 쓰는데, 이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100% 쓰고 있지만, 10대 초반에서는 30%밖에 쓰지 않는다. ‘당신’이란 말은 방언형에 없는 말인데, 60대 이상에서는 50% 쓰고 있다고 하였다. 60대 초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되었다.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고 있다.

2.1.4. 지시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	60대	10대	형태	예

		태					
지 시 대 명 사	사 물	이것이 책이다.	이것	100	0	이거	이거이 책이다.
		그것이 책이다니까.	그것	100	100	그거	그거 책이당께.
		요것이 밋이나?	요것	0	10	요거	요거 머이나?
				(100)	(100)	(요것)	(요거시 머이나?) )
				0	0	저거	저거 머이나?
		저것이 밋이나?	저것	(100)	(100)	(저것)	(저거시 머이나?)
	미 지 칭	저것이 밋이나?	무엇	100	100	머	저거이 머이나?
		저것이 뭐냐?	뭐	100	100	머	저거이 머이나?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구	100	100	누구	저 사람이 누구여?
		어디 가?	어디	100	100	어디	어디 가?
		언제 왔나?	언제	100	100	언제	언제 왔나?
	장 소	여기가 따듯하고 제일 좋아.	여기	0	0	여	여가 따습고 제일 좋아.
				100	0	여그	여그가 따습고 쁘 좋아.
		거기가 더 좋다.	거기	0	0	거	거가 더 좋다.
				(100)	0	(거그)	(거그가 더 좋다.) (60대 '거그' 사용)
저기가 제일 좋아.		저기	0	0	저	저가 제일 좋아.	
		(100)	0	(저그)	(저그가 제일 좋아.) (60대 '저그' 사용)		

지시대명사 중에서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요것, 저것’은 남원 방언에서 ‘이거, 그거, 요거, 저거’라고 쓴다. 그러던 것이 60대에서는 ‘요거, 저거’를 ‘요거시, 저거시’로 쓴다고 하였다. 이는 ‘요것이, 저것이’가 연음되어 발음된 것이 ‘스’이 탈락되지 않고 표준어처럼 ‘스’이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그거’는 100% 사용하지만, ‘요거’는 10% 사용하고 있다. ‘요것, 저것’도 사용하고 있다. 미지칭 대명사 ‘무엇, 뭐, 누구, 어디, 언제’는 남원 방언에서 ‘머, 머, 누구, 어디, 언제’로 쓰고 있다. 60대 초반 이상, 10대 초반에서도 방언 형태 그대로 100% 쓰고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여기, 거기, 저기’는 남원 방언에서는 ‘여, 여그, 거, 저’인데, 60대 이상에서 ‘거그, 저그’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여, 거,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 10대 초반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방언형은 안 쓴다.

## 2.2. 조사

### 2.2.1. 격조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주격 조사	아들이 온다. 소가 뛰어 온다.	-이/가	100	100	-이/가	아들이 온다. 소가 뛰어 온다.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면사무소에서 오라고 한다.	-께서 -에서	x 100	x 100	x 에서	*'-께서' 높임말 안 씀 면청에서 오란다.
	나 혼자서 다 했네.	-서	x(10)	x(70)	x (-서)	(나 혼자 다 했네.) (60, 10대에서 사용됨)
목적 격 조사	말을 못 해.	-을/를	100	100	-을	말을 못 해.
보격 조사	물이 되었다.	-이/가	x(생략) 7)	0 100	x(생략) (-이)	(물 됐다.) (10대에서 '이' 사용)
관형 격 조사	이것이 누구의 집이냐?	-의	x(생략)	x(생략)	x(생략)	(어거이 누 집이냐?)
서술 격 조사	저것은 풀이다.	-이다	100	100	-이다	저것은 풀이다.
호격 조사	철수야.	-아/야	100	100	-야	철수야.
	아버지 <sup>8</sup>	- <sup>8</sup>	90 (10)	100 x	- <sup>8</sup> (-요)	아버지 (아부지요)(60대 새로 사용)
부사 격 조사	밭에 갔다.	-에	100	100	-에	밭에 갔다.
	딸에게 전화해.	-에게	100	100	-한테	딸한테 전화해.
	이것을 아버지께 드러라.	-께	x		x (15) (85) (-께) (-한테)	(10대 사용)
	딸한테 주어라.	-한테	100	100	-한테	딸한테 줘라.
	어디에서 왔나?	-서/에서	100	100	-서/에서	어디서 왔나?
	순이보고 말해 보아라.	-보고	50 (50)	0 (100)	-보고 (-한테)	순이보고 말해 바라. (순이한테 말해 바라.)
	순이더러 말해 보아라.	-더러	50 (50)	0 (100)	-더러 (-한테)	순이더러 말해 바라. (순이한테 말해 바라.)
	툇으로 썰어.	-(으)로	100	100	-으로	툇으로 썰어.

뜬으로써 잘라라.	-(으)로 써	x	x	x	
할머니로서 아이를 봐 주는 것이 당연하 지.	-(으)로 서	x	x	x	
이장으로 그러면 되 느냐?	-(으)로	x	x	x	
바나나와 밀감/밀감과 바나나	-와/과	100	100	-와/과	바나나와 밀감/밀감과 바나나
밀감하고 바나나	-하고	100	100	-하고	밀감하고 바나나
밀감이랑 바나나	-이랑	100	100	-이랑	밀감이랑 바나나
어서 오라고 했다.	-고	100	100	-고	어서 오라고 했다.
‘삼천포’라고 했다.	-라고	100	x	-라고	‘삼천포’라고 했다.
경상도 사람보다 전 라도 사람이 좋다.	-보다	100	100	-보다	경상도 사람보다 전라 도 사람이 좋다.
나처럼 해 봐라.	-처럼	100	0	-메이로	나메이로 해 바라.
나만큼만 해 봐라.	-만큼	100	0	-만치	나만치만 해 바라.
쌀밥은커녕 보리밥도 못 먹었지.	-커녕	100	x	-커녕	쌀밥은커녕 보리밥도 못 먹었지.

표준어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서’는 남원 방언에서는 ‘-이/가, -에서’만 쓰이고 ‘-께서, -서’는 안 쓰인다. 그러던 것이 ‘-서’를 새롭게 쓰는 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10%, 10대 초반에서는 70%이고, ‘-서’를 안 쓰는 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90%, 10대 초반에서는 30%이다. 목적격 조사는 표준어 방언 모두 같다. 세대 차이도 없다. 보격 조사 ‘-이/가’는 남원 방언에서는 안 쓰는데, 60대 초반 이상에서도 안 쓰고 있다. 그러나 10대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다. 관형격 조사 ‘-의’는 남원 방언에서는 안 쓴다. 그리고 60대, 10대 모두에서도 생략되어 쓰지 않고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방언에서도, 60대 초 이상에서도, 10대 초반에서도 쓰고 있다. 호격 조사 ‘-야’도 모두 잘 쓰고 있으나, ‘-요’는 방언형에 없다. 그러나 60대에서는 10% 정도 쓰고 있다. 10대에서는 쓰지 않는다. 부사격 조사 ‘-에, -한테, -서/에서,

7) ‘x(생략)’은 원래 그 형태가 있어야 하나 생략되어 안 쓰인 것을 말한다.

-(으)로(수단), -와/과, -하고, -이랑, -고, -라고, -보다, -커녕'은 표준어와 같은 형태로 쓰고 있다. 그런데 '-에게'는 '-한테', '-만큼'은 '-만치'로 쓰고 있다. 60대 초 이상에서도 이 방언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10대에서는 '-한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만치'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으)로(자격), -(으)로서, -(으)로써'는 방언에서 쓰지 않고 있으며, 10대, 60대 모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보고, -더러'는 방언형에서는 쓰고 있는데, 60대에서는 '-한테'와 함께 50%씩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0대에서는 '-한테'만 쓰고 있다. '-께'는 없는 조사였고, 60대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나 10대에서는 '-한테'가 주로 쓰이나 '-께'도 15% 쓰고 있다. '-라고, -처럼, -만큼, -커녕'은 방언 형태는 '-라고, -메이로, -만치, -커녕'으로 쓴다. 이 방언 형태는 60대 초 이상에서는 그대로 다 쓰나, 10대 초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방언 조사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방언 형태와 더불어 표준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으며 10대 초반에서는 좀 더 많은 비율로 표준어 조사 형태를 써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으)로(자격), -(으)로서, -(으)로써' 등과 같은 표준어 형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다.

2.2.2. 보조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보조사	딸은 먼저 가고.	-는/은	100	100	-은	딸은 먼저 가고
	딸만 가고.	-만	100	100	-만	딸만 가고
	사위도 같이 간다.	-도	100	100	-도	사위도 같이 간다.
	날마다 경로당에 오지.	-마다	100	x	-마다	날마다 경로당에 오지.
	손자까지 갔다.	-까지	100	100	-까지	손자까지 갔다.
	너마저 가냐?	-마저	100	x	-마저	너마저 가냐?
	구경조차 못했다.	-조차	100	x	-조차	구경조차 못했다.
	밥이나 먹지.	-이나	100	100	-이나	밥이나 먹자.
	딸이나마 내 편을 들어주어서 좋네.	-이나마	100	x	-이라도	딸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어서 좋네.
마음이야 어디든지 가	-이야	100	x	-이야	마음이야 어디든지 가고	

	고 싶지.					싶지.
	마음이야말로 훨훨 날고 싶지.	-이야말로	100	x	-이야말로	마음이야말로 훨훨 날고 싶지.
	우린 아들밖에 없어.	-밖에	50 (50)	100 0	-밖에 (-배계)	우린 아들밖에 없어. (우린 아들배계 없어.)
	내가요 밥을요 했어요.	-요	x	(50)	$\times$ (-요)	(10대 사용)

보조사는 이 방언에서는 ‘-요’를 제외하고는 모두 존재한다. 그런데 이 ‘-요’는 60대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10대에서는 50%를 사용하고 있다. 또 ‘-밖에’는 60대 이상에서는 ‘-밖에’의 음운변화형 ‘-배계(<백에>)’를 50% 쓰고 있다. 나머지 보조사는 60대 이상에서 모두 쓰고 있다. 그런데 10대 초반에서는 사용 어휘의 제한성 때문인지 ‘-마다, -조차, -이라도, -이야, -이야말로, -마저’는 안 쓰고 있다.

### 2.3. 종결어미와 경어법

#### 2.3.1. 명령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명령형	밥 먹어라.	-어라	100	x	-어라	밥 묵어라.
	저리 가거라.	-거라	100	x	-거라	저리 가거라.
	이리 오너라	-너라	50 (50)	x x	-이라 (-아/어라)	이리 오이라. (이리 와라.)
	자네는 이리 오게.	-게	100	x	-게	자네는 이리 오게.
	자네는 이리 오오.	-오	100	x	-소	자네는 이리 오소.
	저리 가십시오	-하십시오	100	x	-시오	저리 가시오(가쇼).
	저리 가.	-아/어	100	100	-아/어	저리 가.
	저리 가요	-아/어요	100	x	-아/어요	저리 가요.
	저리 가세요	-(으)세요	x	100	-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지요	-시지요	x	x	-시지요	저리 가지지요.

남원 방언의 명령형 종결어미는 격식체로 ‘-어라(-거라, -이라), -게, -소, -시오’가 있고, 비격식체로 ‘-아/어, -아/어요, -세요, -시지요’가 있다. 남원 방언에서는 격식체 ‘-어라’의 이형태 ‘-너라’는 없고, ‘-이라’가 쓰이고 있는데, 60대 초반에서는 ‘-이라’와 ‘-어라’가 50%씩 쓰이고 있다. 또 격식체 아주높임의 ‘-십시오’는 없고, 대신 ‘-시오’가 쓰이고 있다. 위와 같은 격식체 명령형 종결어미는 10대 초반은 전혀 쓰지 않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비격식체 ‘-아/어’와 ‘-세요’만 쓰고 있다. ‘-아/어, -세요’는 10대 초반 어린이들은 100% 쓰고 있다. 그런데 ‘-(으)세요’는 60대 이상에서는 안 쓰고, 두루뎛춤 ‘-아/어’와 두루높임 ‘-아/어요’ 두 가지만 써서 원래의 방언 및 10대와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지요’도 60대 이상과 10대 초반에서 모두 안 쓰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1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 높임법에 따른 경어를 안 쓰고, 비격식체인 ‘-아/어, -세요’ 두 가지로만 높임 등급을 나타내는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2. 청유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청유형	우리 밥 먹자.	-자	100	100	-자	우리 밥 먹자.
	밥 먹세.	-세	100	x	-세	밥 먹세.
	저리 가오.	-오	x	x	x	
	밥 먹읍시다.	-하십시오	100	x	-하십시오	밥 먹읍시다.
	우리 저리 가.	-아/어	100	x	-아/어	우리 저리 가.
	우리 저리 가요.	-아/어요	0	100	-아/어요	우리 저리 가요.
저리 가지지요	-시지요	(100)	0	x	(60대 ‘-시지요’ 사용)	

청유형 종결어미는 남원 방언에서는 격식체 예사높임의 ‘-오’와 비격식체 ‘-시지요’를 빼고는 모두 사용하고 있다. ‘-오’는 60대, 10대에서도 안 쓰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비격식체인 ‘-아/어요’는 안 쓰고, 대신 ‘-시지요’를 쓰고 있어서 ‘-아/어요’와 ‘-시지요’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 아주낮춤의 ‘-자’와 비격식체 두루높임의 ‘-아/어요’ 두 가지만 쓰고

있다.

2.3.3. 의문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의문형	뭘 먹느냐?	-냐	100	x	-냐	뭘 묵냐?
	뭘 먹는가?	-는가	100	x	-(으)ㄴ대	뭘 묵은대?
	뭘 잡수오?	-오	100	x	-요	뭘 잡수요?
	뭘 먹습니까?	-ㅁ니까	x	x	×	
	뭘 먹었어?	-아/어	100	100	-아/어	머 묵었어?
	뭘 잡수었어요?	-아/어요	100	100	-아/어요	뭘 잡쌌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10대)
	뭘 먹으세요?	-(으)세요	x	(100)	×(-세요)	(뭘 드세요?: 10대)

남원 방언의 의문형 종결어미는 격식체로는 ‘-냐, -(으)ㄴ대, -요’를 썼고, 비격식체로는 ‘-아/어, -아/어요’를 썼다. 격식체의 아주높임 ‘-ㅁ니까’와 비격식체의 ‘-(으)세요’는 쓰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60대 이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던 것이 10대 초반에서 격식체는 쓰지 않고, 비격식체만 쓰고 있는데, 원래 방언에 없고 60대 이상에서 쓰지 않는 ‘-(으)세요’ 형태까지도 100% 쓰고 있다. 그래서 비격식체 의문형 종결어미는 ‘-아/어, -아/어요, -(으)세요’ 세 체계로 쓴다.

2.3.4. 서술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서술형	논에 모 심으러 간다.	-다/-는다	100	x	-다/-는다	논에 모 숨으러 간다.
	거기는 와도 나는 가네.	-네	100	x	-네	거그는 와도 나는 가네.
	논에 가오.	-오	x	x	×	

논에 갑니다.	-비니다	(100)	x	×	(논에 갑니다.)
나 밭에 가.	-아/어	100	100	-아/어	나 밭에 가.
밭에 갔다 올 게요.	-아/어요	100	100	-아/어요	밭에 갔다 오게요.
아버지는 논에 가세요.	-으세요	x	x	×	

남원 방언의 서술형 종결어미는 격식체로 아주낮춤 ‘-다/-ㄴ다’, 예사낮춤으로 ‘-네’를 쓰고, 비격식체로는 두루낮춤 ‘-아/어’, 두루높임 ‘-아/어요’를 쓴다. 그러던 것이 6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두에서 표준어와 같은 높임법 체계에 따른 서술형 종결어미를 쓰게 되었다. 다만 ‘-오’와 ‘-(으)세요’는 쓰지 않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 어미와 비격식체 ‘-세요’는 쓰지 않고 있으며, 비격식체 ‘-아/어, -아/어요’ 두 가지만 쓰고 있다.

2.3.5. 감탄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감탄형	꽃이 참 예쁘구나! 응?	-(는)구나	100	100	-다	꽃이 참말로 이쁘다! 잉?
	꽃이 참 예쁘구만!	-(는)구만	100	x	-구만	꽃이 참 예쁘구만!
	꽃이 참 예쁘오!	-오	x	x	×	
	꽃이 참 예쁩니다!	-비니다	x	x	×	
	꽃이 참 예뻐!	-아/어	100	x	-아/어	꽃이 참 예뻐!
	꽃이 참 예뻐요!	-아/어요	100	x	-아/어요	꽃이 참 예뻐요!
	딸이 참 예쁘세요!	-으세요	x	x	×	

남원 방언의 감탄형 종결어미는 격식체로는 아주낮춤과 예사낮춤체로 ‘-다, -구만’, 비격식체로는 두루낮춤, 두루높임체 ‘-아/어, -아/어요’를 쓴다. 아주낮춤 형태는 표준어에서는 ‘-구나’지만 이 방언에서는 ‘-다’가 쓰인다. ‘-구만’은 60대 이상에서는 쓰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고 있다.

2.4. 연결어미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대등적 연결어미	오라버니는 가고, 동생은 온다.	-고	100	100	-고	오라바이는 가고, 동생은 온다.
	형은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면서	0	100	-면서	성은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100)	(0)	(-ㅁ서)	(성은 감서 노래를 부른다.)
	형은 가더라도 너는 가지 마라.	-더라도	100	100	-도	성은 가도 너는 가지 마라.
	형은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	-다가	100	0	-다	성은 가다 도로 오네.
	이것은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인가?	-며	100	100	-고	이거 며이고, 저건 며이대?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인다.	-면	100	100	-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권다.
중속적 연결어미	너는 가겠지만, 나는 안 갈란다.	-지만	100	100	-도	너는 가도, 나는 안 갈란다.
	서 보니까, 아파서 가질 못 해.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니까	100	0(-께) 100(-서)	-께, -서	서 본께, 아파서 가덜 못 혀.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다.
	그것이 무엇이관대 그래?	-관대	100	0	-간디	거 며이간디 그래? 그거 며시간디 그래?
	내 아들 보거든 물어봐.	-거든	100	0 (100)	-면 (-면)	내 아들(아덜) 보면 물어바.
	나 저기 밥 먹으려고 가. 먹고 살려고 일한다.	-려고	100	100 0 (100)	-려 -르라고 (-르려고)	나 저그 밥 먹으러 가. 묵고 살라고 일한다.
	보면 볼수록 꽤 예쁘네.	-르수록	100	100	-르수록	보면 볼수록 깨 예쁘네.
	너도 알듯이 이려고 저려고 안 했어?	-듯이	0	0	-다사 마	너도 알다사마 이려고 저려고 안 했어?

			(100)	(100)	(-듯이)	(너도 알듯이 이려고 저려고 안 했어?)
	어깨가 아파서 죽겠어.	-아서/어서	100	100 (100)	-아 (-아서)	어깨가 아파 죽겠어.
	네가 오면, 나는 간다.	-면	100	0	-면	니가 오면, 나는 가네.
	비가 오니, 물이 넘친다.	-니	100	0 (100)	-께 (-니까)	비가 올께, 물이 넘친다.
	물을 먹으러 짐승이 내려온가 봐.	-러	100	100	-러	물을 먹으러 짐승이 내려온가 봐.
	먹고 살고자 일한다.	-고자	100	0 (100)	-르라 고 (-르려고)	묵고 살라고 일한다.
	내가 그것을 물었는데 말을 못 해.	-니데	100	0	-니디	내가 그것을 물었는데 말을 못 해(/혀).
보조 적	책이 꽃혀 있네.	-아/어	100	100	-아/어	책이 꽃혀 있네.
	이번에 일하게 됐다.	-게	100	x	-게	이번에 일하게 됐다.
	미국에 가도록 되었다.	-도록	x	x	x	
연결 어미	아무도 오지 않았어.	-지 (않-)	100	x	-지 (않-)	아무도 오지 않았어.
	일하고 있어.	-고	100	100	-고	일하고 있어.
인용 연결 어미	내가 간다고 말했다.	-고	100	100	-고	내가 간다고 말했다.
	“삼천포”라고 말했다.	-라고	100	100	-라고	“삼천포”라고 말했다.

먼저 남원 방언의 대등적 연결어미를 보면 ‘-고, -면서, -면’은 표준어와 같다. 그러나 ‘-면서’는 60대 초반에서는 ‘-면서’를 안 쓰고 대신 ‘-ㅁ서’를 100% 쓴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ㅁ서’는 안 쓰고 ‘-면서’를 100% 쓴다. 다른 대등적 연결어미 ‘-더라도, -다가, -(으)며, -지만’은 남원 방언에서는 ‘-도, -다, -고, -도’로 쓴다. 이러한 방언 형태는 60대 초반에서는 100% 방언 형태 그대로 쓰고 있고, 10대 초반에서도 ‘-다’를 제외하면 방언 형태 그대로 쓰고 있다. 방언 형태의 간편성 또는 구어체적인 표현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둘째로 종속적 연결어미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 형태가 약간 변한 형태, 아예 다른 형태를 쓰고 있다. 표준어와 같은 형태는 ‘-르수록, -러’이다. 형태가 약간 변한 형태는 ‘-이관대’가 ‘-간디’, ‘-(으)려고’가 ‘-(으)러, -(으)르라고’, ‘-아/어서’가 ‘-아’, ‘-면’이 ‘-면’, ‘-ㄴ데’가 ‘-ㄴ디’가 있다. 아예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은 ‘-(으)니까’가 ‘-께, -서’, ‘-거든’이 ‘-면’, ‘-듯이’가 ‘-다사마’, ‘-니’가 ‘-께’, ‘-고자’가 ‘-르라고’로 쓰인 것이 있다. 이러한 종속적 연결어미는 ‘-다사마’를 제외하면 60대 이상에서는 방언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10대 초반에서는 ‘-으니까’의 방언형 ‘-께’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서’를 쓰고 있다. ‘이관대’의 방언형 ‘-이간디’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려고’의 방언형 ‘-라고’, ‘-면’의 방언형 ‘면’, ‘-니’의 방언형 ‘-께’, ‘-고자’의 방언형 ‘-르라고’, ‘-ㄴ데’의 방언형 ‘-ㄴ디’ 등도 마찬가지로 10대 초반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신 표준어 ‘-니까’는 ‘-서’, ‘-거든’은 ‘-면’, ‘-려고’는 ‘-려고’, ‘-아/어서’는 ‘-아, -어서’, ‘-니’는 ‘-니까’, ‘-고자’는 ‘-르려고’ 등으로 쓰고 있어 표준어 연결어미와 많이 같아졌다.

셋째로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예 사용하지 않은 ‘-도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표준어 보조적 연결어미와 같다. 그런데 이것도 세대적 차이는 있다. 60대 이상이 ‘-도록’을 제외한 방언형 보조적 연결어미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10대 초반에서는 ‘-께’, ‘-지(않-)’와 같은 형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정의 ‘-지 않다’의 ‘-지’ 보조적 연결어미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단형 부정 ‘안’을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 ‘-지 말다’는 사용한다.

넷째로 인용 연결어미는 방언형이나 표준어나 같은데, 60대, 10대 모두에서 방언형 그대로 100% 사용하고 있다.

### 2.5. 시제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종결형	미래	내일까지 하면 되겠어.	-겠-	100	0	-겠-	내일까지 허면 되겠어.
		나는 내일 눈에 가리	-리-	x	x	x	

관 형 사 형	현 재	라 .						
		내일 할 것이다.	-리 것-	100	100	-리 것-	내일 할(할) 것이다.	
		지금 논다.	-리/는 다	100	x	-리/는 다	시방 논다.	
	과 거	나무가 참 예쁘네.	-으-	-으-	-으-	-으-	나무가 참 예쁘네.	
		저 밭이네.	-으-	-으-	-으-	-으-	저 밭이네.	
		나는 지금 밭에 가고 있다.	-고 있-	100	100	-고 있-	나는 시방 밭에 가고 있 다.	
	미 래	너 밥 먹었냐?	-었-	100	100	-었-	너 밥 묵었냐?	
		너희 형이 밥을 먹더 라.	-더-	100	x	-더-	느그 형이 밥을 먹(/묵)더 라.	
		어제께 밭에 갔었냐?	-었었-	100	100	-었었-	어제께 밭에 갔었냐?	
	관 형 사 형	현 재	내가 어제 밭에 갔더 니 멧돼지가 난리를 쳤네.	-었더-	100	100	-었더-	내가 어제 밭에 갔더니 멧돼지가 난리를 쳤네.
			내가 만날 사람은 구 장이다.	-리	100	100	-리	내가 만날 사람은 구장이 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는	100	100	-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 데?
과 거		여기서 제일 예쁜 사 람이 누구냐?	-리	100	100	-리	여그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생일인 사람은 누구냐?	-리	x (100)	x (100)	x (-리)	x (오늘 생일인 사람은 누 구냐?)	
		어제 생일 쉰 사람이 누군가?	-리	100	100	-리	어제 생일 쉰 사람이 누 군가?	
관 형 사 형	과 거	어제 집에 간 학생이 누구지?	-리	100	100	-리	어제(어저께) 집에 간 학 생이 누구데?	
		어제 갔던 데가 어딘 가?	-왔던	100	100	-왔던	어제(어저께) 갔던 데가 어딘가?	

시제 관련 형태를 종결형과 관형사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종결형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는 미래 형태로 방언형에서는 ‘-리-’를 쓰지 않고, ‘-것-, -리 것-’만 쓴다. 현재 60대 이상에서는 그대로 다 쓰지만 10대

초반에서는 ‘-르 것’만 쓰고 있다. 현재 형태는 표준어 현재 형태가 방언에서 그대로 다 쓰이고 있다.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인데, 10대 초반에서는 ‘-르다’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다 쓴다. ‘-르다’는 안 쓰고, 대신 ‘-고 있다’를 쓰고 있다. 과거 시제 형태도 표준어와 방언의 형태가 같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아직 ‘-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는 미래, 현재, 과거 관형사형 형태가 표준어나 방언 형태가 같으나 ‘-이다’ 서술어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 이 방언형에 안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은 60대 이상, 10대 초반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 2.6. 부정

구 분	표준어		방언사용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안 부정	형이 아직 안 왔네.	안	100	100	안	성이 아직 안 왔네.
	아무도 오지 않았어.	-지 않-	100	x	-지 않-	아무도 오지 않았어.
못 부정	형이 일이 있어서 못 온 가 보다.	못	100	100	못	성이 일이 있어서 못 온 갑다.
	서 보니까 아파서 가질 못해.	-지 못-	100	x	-덜 못-	서 본께 아파서 가덜 못 해.
말다 부정	아프니까 오지 마.	-지 말다	100	100	-지 말다	아픈 께 오지 마.

남원 방언에서 부정 형태는 표준어와 같다. ‘안, -지 않-, 못, -지 못-, -지 말다’ 형태 모두 사용하고 있다. 다만 ‘-지 못-’ 형태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질 못-’을 ‘-덜 못-’ 형태로 쓴다. 이러한 방언 부정 표현 형태는 60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쓰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지 않-, -지 못-’와 같은 장형 부정 형태는 아직 사용하고 않고 있고, ‘-지 말-’만 사용하고 있다.

2.7. 사동, 피동 접미사

2.7.1. 사동 접미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젓 먹여라.	-이-	100	100	-이-	젓 맥이랴.
차 좀 세워 줘요.	-이우-	100	100	-이우-	차 좀 세워줘요.
잘 웃긴다.	-기-	100	100	-기-	잘 웃긴다.
웃 입혀라.	-히-	100	100	-히-	웃 입혀라.
살려야지.	-리-	100	100	-리-	살려야제.
깨워라.	-오/우-	100	100	-오/우-	깨워라(/깨와라).
돈구어라. (얼리다)	-구-	100	x	-구-	돈가라. (얼구다 <sup>8)</sup> )
낮춰라.	-추-	100	100	-추-	낮춰라.
쌩 없애 버려라.	-애-	100	100	-애-	쌩 없애 버려라.

남원 방언의 사동 접미사 형태는 표준어 사동 접미사 형태와 같다. 이러한 사동 접미사 형태의 사용은 60대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10대 초반에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다만 사동접미사 ‘-구-’ 형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2.7.2. 피동 접미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머리카락 보인다.	-이-	100	100	-이-	머리카락(멀크락) 뵈다. 머리카락 뵈다.
소식이 끊겼다..	-기-	100 (100)	x (100)	-기-	문이 뻘졌다. 잘 안 듣기네. (소식이 끊긴다.)
잡혔다.	-히-	100	100	-히-	잡혔다.
그럼, 들리지.	-리-	100	100	-리-	하, 들리제 하면

8) 소강춘 외(2010:206)에 인용한 단어임.

남원 방언의 피동접미사도 표준어의 피동접미사와 같다. 다만 ‘-기-’ 피동 접미사가 붙는 환경이 표준어와 약간 다르다. 위 표에서 ‘문이 댕겼다. 잘 안 듣기네.’의 ‘댕겼다, 듣기네’는 현대 표준어에서는 ‘닫혔다, 들리네’로 ‘-히-, -리-’ 접미사가 쓰이지만, 남원 방언에서는 ‘-기-’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60대, 10대 확인 대상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식이 끊긴다’와 같은 문장도 쓰여 표준어와 같은 조건에서 ‘-기-’ 피동접미사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동접미사는 60대나 10대 모두에서 사용하나 다만 10대 초에서는 방언 형태인 ‘댕겼다, 듣기네’ 형태는 안 쓰고 있다.

## 2.8. 보조 용언

### 2.8.1. 보조동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진행	청소를 다 해 간다.	-어 가다	100	100	-어 가다	청소 다 해 간다.
	물이 먹고 싶어서 제가 내려온다.	-어 오다	100	100	-어 오다	물이 목고 자서 지가 내려 온다.
	일하고 있다.	-고 있다	100	100	-고 있다	일혀고 있다.
종결	잊어버리고 왔다.	-어 버리다	100	100	-어 불다	잊어 불고 왔다.
	다 하고 나서 거들 어 줄게.	-고 나다	100	100	-고 나다	다 혀고 나서 거들어 줄게.
	그 무서운 것 다 해 냈네.	-어 내다	100	100	-어 내다	그 무서운 거 다 해 냈네.
	그 일을 하고야 말 겠다.	-야 말다	x (100)	x	x (-야 말다)	(그 일을 다 혀고야 말겠다.)
봉사	연 같은 것을 만들 어 준다.	-어 주다	100	100	-어 주다	연 겉은 것을 만들어 준다.
보유	책상에 엮어 두었 다.	-어 두다	100	100	-어 놓다	(책상에 엮어 뵈다.)
	책을 책상에 엮어	-어 놓다	100	100	-어 놓다	냉장고에 넣어 뵈야제.

	놓았다.					
	챙겨 가지고 와라.	-어 가지다	100	100	-어 가지다	챙겨 가지고(갖고) 와라.
사 동	노인회장을 누가 하게 할까?	(-게) 하다	100	100	-게 하다	노인회장을 누가 허게 할 까?
	작동이 잘 되게 만 들어라.	-게 만들다	100 (100)	100 x	-게 하다 (-게 만들다)	작동이 잘 되게 해라. (작동이 잘 되게 만들어라.)
피 동	추워진다.	-어 지다	100	100	-어 지다	추워진다.
	내가 노인회장을 다시 하게 됐다.	-게 되다	100	100	-게 되다	내가 노인회장을 다시 허게 됐다.
부 정	가지 않는다.	-지 아니하다	100	x	-지 아니하다	가지 않는다.
	울지 말아라	-지 말다	100	100	-지 말다	울지 마라.
	너는 오지 못한다.	-지 못하다	100 (100)	x (0)	-덜 못하다 (-지 못하다)	너는 오덜 못한다. (너는 오지 못한다.)
강 세	시끄럽게 울어 댄 다.	-어 대다	100	0	-어 쌓다	시끄럽게 울어 쓴다.
	국수는 식어 빠져 도 좋다.	-어 빠지다	100	x	-어 빠지다	국수는 식어 빠져도 좋다.
	몸서리나게 물어 쌓네	-어 쌓다	100	x	-어 쌓다	몸떨나게 물어 쌓네
집 작	좋아 보인다.	-어 보이다	100	100	-아 보이다	좋아 비네.(좋아 벤다.)
	일이 있어서 못 오 는가 보다.	-ㄴ가 보다	100	100	-ㄴ가 보다	일이 있어서 못 온 갑다.
당 위	약 계속 먹어야 한 다.	-야 한다	100	100	-야 한다	약 계속 묵어야 한다.
시 인	먹기는 했는데 자 꾸 당겨.	-는 하다	100	100	-는 하다	묵기는 했는디 자꼬 땡겨.

남원 방언의 보조동사의 형태는 표준어와 거의 같으나 몇 가지 다른 형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표준어 ‘-버리다’를 ‘-어 불다’<sup>9)</sup>로, ‘-어 두다’를 ‘-어 놓다’로, ‘-게 만들다’

9) 이태영 교수의 글을 참고한 금란(2011), ‘전북 방언과 전남 방언의 차이’에서는 ‘불

를 ‘-게 하다’, ‘-지 못하다’는 ‘-덜 못하다’, ‘-어 대다’를 ‘-어 쌓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형태는 ‘-야 말다’ 형태이다. 그런데 쓰지 않았던 형태 ‘-야 말다, -게 만들다, -지 못하다’ 모두 60대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야 말다, -게 만들다,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어 대다, -어 빠지다, -어 쌓다’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고 있다.

2.8.2. 보조 형용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희망	빨리 가고 싶다.	-고 싶다	100	100	-고 싶다/잡다	빨리 가고 싶다. 물이 먹고 잡아서 지가 내려온다.
부정	날씨가 덥지 않다.	-지 않다	100	x	-지 않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지 못하다	100 (100)	x x	-덜 못하다 (-지 못하다)	서 본께 아파서 가덜 못 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추추	학교인가 보다	-는가/는가 /나 보다	100	100	-는가 보다	학꼐잡다.
	이제 가는가 싶다	-는가/나/ 르까 싶다	x (100)	x x	x (-가 싶다)	 (이제 강가 싶다.)
시인	크기는 하네.	-기는 하다	100	100	-기는 허다	크기는 허네.

남원 방언의 보조형용사는 ‘-고 싶다/잡다, -지 않다, -덜 못하다, -는가

다’는 전남 방언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남원 방언에서도 ‘불다’가 사용되고 있다.

보다, -기는 허다'와 같은 형태가 있다. '-는가 싶다'의 '싶다' 보조형용사는 안 썼다. 60대에서는 '싶다'도 100% 쓰게 되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고 싶다/잡다, -ㄴ가 보다, -기는 허네'와 같은 형태만 쓰고, 나머지 형태 '-지 않다, -지 못하다, -는가 싶다' 형태는 안 쓰고 있다.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실컷 많이 먹어라.	실컷	100	100	실컷	실컷 마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100	50 50	마이 (많이)	마이 먹어라.
너무나 허네.	너무	50 (50)	0 (0)	너무나 (넘다)	너무나 허네.(10대 '너무'를 사용) 넘다 허네.
조금만 먹어.	조금	100	30	쩌끔만	쩌끔만 먹어.
자주 조금 다녀.	자주	100	100	자주	자주 조깨 멩겨.
빨리 와.	빨리	60 (40)	20 (80)	어서 (빨리)	어서 와 (빨리 와.)
얼른 와.	얼른	100	70	얼른	얼른 와
항상 조심해라.	항상	100	100	항상	항상 조심해라.
늘 늦네.	늘	50 (50)	0 (100)	만날 (맨날)	만날 늦으네. (맨날 늦으네.)
자꾸 온다.	자꾸	100	0	자꼬	자꼬 오네.
걸핏하면 운다.	걸핏하면	10 (90)	x x	까딱구먼 (까딱허먼)	까딱구먼 운다. (까딱허먼 운다.)
가끔 올 게.	가끔	100	100	가끔	가끔 올 게.
이따금 한 번씩 와.	이따금	10 (90)	x (100)	이따금 (가끔)	이따금 한 번씩 와. (가끔 한 번씩 와.)
먼저 할 사람?	먼저	20 (80)	0 (100)	앞에 (먼저)	앞에 헐 사람? (먼저 헐 사람?)
제일 나중에 온다.	나중에	100	100	나중에	젤 나중에 온다.
미리 말하고 오너라.	미리	100	100	미리	미리 말허고 오이라.
가득 찼다.	가득	100	0 (100)	까득 (가득)	까득 찼다.
몽땅 먹어라.	몽땅	100	100	마이	마이 먹어라.
모조리 뵈다.	모조리	70	100	다	다 뵈다.

		(30)	x	(몽땅)	(몽땅 뻘다.)
혼자 다 하셨어.	혼자	100	0	혼차	혼차 다 하셨어.
함께 해라.	함께	80	80	같이	같이 해라.
		(20)	(20)	(함께)	(함께 해라.)
똑똑히 잘 듣고 가.	똑똑히	100	100	똑똑히	똑똑히 잘 듣고 가.
기어코 다 하려고 하나?	기어코	100	90	기어이	기어이 다 헐라고 허냐?
겨우 왔다.	겨우	100	0	보도시/뵤도시	보도시/뵤도시 왔다.
매우 좋아?	매우	100	80	겁나게	겁나게 좋아.
		(20)	(20)	(겁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100	0	얼매나	얼매나 좋은지 몰라.
저절로 돈을 번 줄 아나?	저절로	100	100	저절로	저절로 돈을 번 줄을 아나?
그냥 좋아.	그냥	100	100	그냥	그냥 좋아.
설마 오늘 또 올까.	설마	100	100	설마	설마 오늘 또 오께이.
하마터면 넘어질 뻔 했네.	하마터면	20	50	하마터라	하마터라면 넘어질 뻔 했네.
		(80)	(50)	(하마트면)	(하마트면 넘어질 뻔 했네.)
공연히 뭐하게 그랬어.	공연히	100	100	괜히	괜히 멋허게 그랬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100	0	가마이	가마이 있으라.
곧장 내려와라.	곧장	100	100	바로	바로 내려 와라.
벌써 내려 왔네.	벌써	100	100	벌써	벌써 내려 왔네.
가장 앞에 왔어.	가장	100	80	제일	제일 앞에 왔어.

2.9. 부사

표준어 부사와 같은 형태의 남원 방언 부사는 ‘실컷, 자주, 얼른, 항상, 가끔, 이따끔, 나중에, 미리, 똑똑히, 저절로, 그냥, 설마, 벌써’ 등이다. 약간의 음운 변화나 음절의 변화가 있는 부사는 ‘마이, 너무나, 째끔만, 자꼬, 까득, 혼차, 기어이, 얼매나, 하마터라면, 가마이’ 등이다. 표준어의 형태와 다른 부사는 ‘어서(빨리)<sup>10)</sup>, 만날(늘), 까딱구면(걸핏하면), 앞에(먼저), 마이(몽땅),

다(모조리), 같이(함께), 보도시/뽀도시(겨우), 겁나게(매우), 괜히(공연히), 바로(곧장), 제일(가장)이다. 이렇게 다른 형태는 ‘까깍구먼, 보도시, 겁나게’와 같은 방언만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어서, 만날, 앞에, 다, 같이, 괜히, 바로, 제일’과 같은 다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사도 60대 이상에서는 표준어와 같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어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표준어 ‘너무’는 ‘너무나’로 쓰고 있으나 또 다른 형태 ‘넘다’가 나타나 두 가지를 50%씩 쓰고 있고, 표준어 ‘빨리’는 방언에서는 ‘어서’를 쓰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빨리’도 써 ‘어서’와 ‘빨리’를 60% 대 40%로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늘’은 ‘만날’과 ‘맨날’로 50%씩 쓰고, ‘겉핥하면’은 ‘까딱구먼’과 ‘까딱허먼’으로 10% 대 90%로 쓰며, ‘이따끔’은 ‘이따끔’과 ‘가끔’으로 10% 대 90%로 쓰고, ‘먼저’는 ‘앞에’와 ‘먼저’로 20% 대 80% 쓴다. ‘모조리’는 ‘다’와 ‘몽땅’을 70% 대 30%으로 쓰고, ‘함께’는 ‘같이’와 ‘함께’로 80% 대 20%로 쓰고, ‘하마터면’은 ‘하마터라면’과 ‘하마트면’으로 20% 대 80%로 쓰고 있다. 나머지는 방언 형태를 100% 그대로 쓰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실컷, 자주, 얼른, 항상, 가끔, 나중에, 미리, 똑똑히, 저절로, 그냥, 설마, 벌써’ 형태는 100%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와 같은 방언 형태 ‘이따끔’은 안 쓰고 있고, 대신 ‘가끔’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방언 형태 ‘너무나, 자꼬, 까득, 혼자, 겨우, 얼마나, 가마이’는 표준어 형태 ‘너무, 자꾸, 가득, 혼자, 겨우, 얼마나, 가만히’로 쓰고 있다. 방언 형태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마이, 기어이, 겁나게, 하마터라면/하마트면’이고, 방언 형태를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쨌끔만’이다. 안 쓴 형태는 ‘너무나, 넘다, 만날, 자꼬, 까딱구먼, 까득, 혼자, 보도시, 얼마나, 가마이’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방언 형태를 표준어 형태로 바꾸어 쓰기 때문에 방언 형태를 안 쓴 경우이다. 결국 10대 초에서는 몇몇 익숙한 방언 부사 형태를 제외하고는 표준어 형태로 바뀐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0) ( ) 속은 표준어다.

### 3.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방언의 문법 형태가 표준어로 변화되어 가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2016년 6월 9일 남원시에 소재하는 남원노인대학에 다니는 66세 이상의 노인 60명과 남원시에 소재한 남원용성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sup>11)</sup> 그 결과 유용한 답변지 59매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 중에서도 번호에 따라서는 응답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한 개의 번호에 두 개의 항목에 응답한 것도 있어 이러한 번호의 응답 내용을 버리고 유효한 응답 번호만을 선택하여 분석해 보았다. 숫자는 사람 수이고, ( ) 속은 비율(%)이다.

#### 1.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표준어로만 말하고 싶다.	16(27.12)	10(18.18)
2	표준어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서는 사투리로 말하고 싶다.	22(37.29)	8(14.55)
3	사투리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 표준어로 말하고 싶다.	0(0.0)	9(16.36)
4	사투리로만 말하고 싶다.	3(5.08)	3(5.45)
5	어떤 말이든 상관치 않고 말하고 싶다.	18(30.51)	25(45.45)
계		59(100)	55(100)

위 표에 의하면 10대 초반 어린이들은 표준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27.12%이고, 표준어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 사투리도 말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는 37.29%, 모두 64.41%가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싶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투리를 중심으로 말하거나 사투리만 사용하여 말하고

11) 이 조사에 협력해 주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님이신 김진석 회장님, 노인대학장님, 그리고 남원 용성 초등학교 교무부장님, 6학년 담임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싶은 어린이는 모두 5.8%가 되어 사투리를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들은 표준어로만 말하고 싶거나 표준어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 사투리로 말하고 싶은 분들이 32.73%가 되고, 사투리로만 말하고 싶거나 때에 따라 표준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21.81%나 되어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식이 어린이들보다 낮고, 사투리에 사용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린이들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어에 대한 선호도가 사투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준어 사용에 대한 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말을 사용하든 관계없는 경우도 어린이 30.51%, 노인 45.45%가 되어 표준어나 사투리 사용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표준어와 사투리에 대한 의식을 비교해보면 어린이들이 노인들보다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2. 집, 동네, 학교, 시내에서 사투리를 써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져서 나도 사투리로 말하고 싶어진다.	17(29.31)	11(18.64)
2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20(34.48)	18(30.51)
3	촌스럽게 생각되지만 조금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6(27.59)	24(40.68)
4	촌스럽게 느껴져서 쓰고 싶지 않다.	5(8.62)	3(5.08)
계		58(100)	59(100)

이것은 방언 사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방언 사용에 대해 호감을 가지며, 자신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든 어린이가 29.31%나 된다. 그러나 정겹게 느껴지지만 많이 쓰는 것은 싫은 어린이가 34.48%로 1/3 이상에 다다른다. 촌스럽게 느껴지는 어린이(3-4번)는 36.21%를 차지한다. 결국 41명(70.69%)이라는 많은 어린이들은 사투리 사

용에 대한 비하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는 18.64%는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져 사투리를 쓰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71.19%는 많이 쓰고는 싶지 않다고 하였고, 또 촌스럽게 느껴져 쓰고 싶지 않다고 한 노인들은 5.08%를 차지해 이들(2-4번)을 합한 76.27% 노인들이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을 가지고 있다.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을 가진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70.69%와 71.19%로 비슷하게 사투리에 대한 비하 의식을 가지고 있다.

3. 텔레비전 아나운서나 서울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 표준어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19(32.20)	22(37.29)
2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통 정도 든다.	24(40.68)	13(22.03)
3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	14(23.73)	16(27.12)
4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2(3.39)	8(13.56)
계		59(100)	59(100)

3번은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본 것이다. 10대 초반 어린이에게서는 표준어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보통 정도 이상으로 드는 학생이 72.88%이다.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학생이 23.73%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는 표준어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보통 이상으로 드는 노인이 59.32%이다.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노인은 27.12%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표준어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노인들에 비해 어린이들이 더욱 표준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노인들에 비하여 어린이들이 표준어에 대한 좋은 의식 내지는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4. 여러분은 지금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많은 부분을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교과서가 표준어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시간을 통해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19(33.33)	17(29.82)
2	텔레비전에서는 주로 표준어를 써서 말하므로 텔레비전을 볼 때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9(15.79)	19(33.33)
3	책, 잡지, 신문 등이 주로 표준어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7(12.28)	10(17.54)
4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22(38.60)	11(19.30)
계		57(100)	57(100)

10대 초반 어린이들이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우게 될 때는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38.60%)와 수업 시간(33.33%)이다. 다음은 텔레비전(15.79%)이다.<sup>12)</sup>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1/3 정도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고(33.33%), 노인대학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수업 시간에 배운 노인들도 17명으로 29.82%를 차지한다. 그런데 어린이들이든 노인들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표준어를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으나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나 텔레비전,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이 표준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 배운다고 한 학생이 많이 있는데, 표준어를 쓰는 교사, 전학 학생, 표준어를 쓰는 지역에 살다가 내려오는 친척 등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표준어 사용에 대한 선호적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들이 노인들보다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싶은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투리는 필요할 때 조금 쓰고, 가급적 표준어로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 4. 결 론

남원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문법 형태가 어떻게 변했고, 또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알아보았다.

첫째, 2인칭 대명사 ‘네’는 남원 방언에서는 ‘니’로 쓰고 있고, ‘너희, 너희들’은 ‘너그, 느그들’로 쓰고 있다. 60대 이상에서 ‘너희’는 ‘너그’와 ‘느그’를 각각 50%씩 쓰고 있다. 그런데 10대 초반에서는 이인칭 대명사로 ‘너, 니’만 쓰고 있다.

둘째, 주격조사는 남원 방언에서 ‘-께서, -서’는 안 쓴다. 보격 조사 ‘-이/가’는 안 쓰는데, 10대에서는 100% 쓰고 있다. 부사격 조사 ‘-에, -한테, -서/에서, -(으)로(수단), -와/과, -하고, -(이)랑, -고, -라고, -보다, -커녕’은 표준어와 같은 형태로 쓰고 있다. ‘-라고, -처럼, -만큼, -커녕’은 ‘-라고, -메이로, -만치, -커녕’으로 쓴다. 이 형태들은 60대에서는 그대로 다 쓰나, 10대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

셋째, 남원 방언의 명령형 종결어미는 ‘-어라/-거라/-이라, -게, -소, -시오’가 있고, ‘-아/어, -아/어요, -세요’가 있다. 그런데 10대에서는 비격식체 ‘-아/어’와 ‘-세요’만 쓰고 있다. 청유형 종결어미는 ‘-오’와 ‘-시지요’를 빼고는 모두 사용하고 있다. 60대에서는 ‘-아/어요’와 ‘-시지요’를 쓰고 있으나 10대에서는 ‘-자, -아/어요’만 쓰고 있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냐, -(으)냐, -요’를 썼고, ‘-아/어, -아/어요’를 썼다. 60대에서는 ‘방언형태 그대로’ 쓰고 있고, 10대 초반에서 비격식체만 쓰고 있다. 서술형 종결어미는 ‘-다/-니

다, -네’, ‘-아/어’, -아/어요’를 쓴다. 60대 초반에서는 방언 형태에 ‘-ㅂ니다’를 더 사용한다. 10대 초반에서는 ‘-아/어, -아/어요’ 두 가지만 쓴다. 감탄형 종결어미는 ‘-다, -구만’, ‘-아/어, -아/어요’를 쓴다. 표준어 ‘-구나’는 ‘-다’로 쓴다. 이러한 현상은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나 10대에서는 ‘-다’만 쓴다.

넷째, 종속적 연결어미는 표준어와 아예 다른 형태로 ‘-(으)니까’가 ‘-께, -서’, ‘-거든’이 ‘-면’, ‘-듯이’가 ‘-다사마’, ‘-니’가 ‘-께’, ‘-고자’가 ‘-르라고’가 있다. ‘-다사마’를 제외하면 60대 이상에서는 방언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10대 초반에서는 ‘-께, -간디, -르라고, -면, -ㄴ디’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종결형 미래 시제 형태는 ‘-리-’를 안 쓰고, ‘-것-, -르 것-’만 쓴다. 60대 이상에서는 방언형 그대로 다 쓰지만 10대 초반에서는 ‘-르 것’만 쓴다. 현재 시제 형태는 표준어 현재 시제 형태를 방언에서 그대로 다 쓰고 있다.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인데, 10대 초반에서는 ‘-ㄴ다’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다 쓴다. 과거 시제 형태는 표준어와 방언 형태가 같으나 10대 초반에서는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부정 형태는 표준어와 같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지 않-, -지 못-’와 같은 장형 부정 형태는 사용하고 않고 있다.

일곱째, 사동접미사는 표준어 사동 접미사 형태와 같다. 다만 10대 초반에서는 사동접미사 ‘-구-’ 형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피동접미사도 표준어의 피동접미사와 같다. 다만 10대 초에서는 방언 형태인 ‘댘겼다, 듣기네’와 같은 형태는 쓰지 않고 있다.

여덟째, 보조동사 형태는 표준어와 거의 같다.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어 불다’, ‘-덜 못허다’ 등이 있다. 이 형태도 60대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덜 못허다’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홉째, 부사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의 부사가 많다. 표준어의 형태와 다른 부사는 60대 이상에서는 방언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지만, 10대 초반에서는 표준어 형태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방언 형태 ‘자꼬, 까득, 혼차, 보도시, 열매나, 가마이’는 표준어 형태 ‘자꾸, 가득, 혼자, 겨우,

얼마나, 가만히'로 쓰이고 있다.

열째,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은 어린이들이 노인들보다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싶은 의식이 강하다.

[Abstract]

The Grammatical Form of Jeonbuk Namweon Dialect and the Change  
of the Using the Dialect

- by the Generation Difference and Thought about the Dialect -

There are four types of the grammatical types of the Namwon dialect. The first one is the same type with the standard grammatical types. The second one is the similar types with the standard grammatical types as 'neogeu(neoheui)'. The third one is entirely different one as 'geomnage(manhi)'. The fourth one is the type that there is nothing in Namwon dialect as honorific '-o'.

The sixtieth(over 60 years old people) used the similar grammatical types with the Namwon dialect, but the tenth(over 10 years old people) used the similar types with grammatical types of the standard language. The peculiar types is the honorific system of 60's and 10's. The honorific system of 60's is 'lower-low-(high)-higher' in formal system, but in 10's the formal honorific system is scarcely used. The 10's use informal honorific system.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is the convenience of usage. And when the children use the negative, they do not use '-chi an-, -chi mos-'.

The consciousness of the Standard language and Namwon dialect in 60's and 10's is similar. They want to speak with the standard language although they love the Namwon dialect. This phenomenon is stronger in 10's than 60's.

Key words : Jeonbuk Namweon Dialect, grammatical type, change of the grammatical type, standard language, dialect, consciousness of the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 참고 문헌

### □ 단행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 제5편, 평강정밀 인쇄 공업사, 1980, 407-453면.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국립국어원, 2006.
- 소강춘·서정섭·주경미, 『2010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 음운, 문법)』, 국립국어원, 2010, 190-214면.
- 남기삼·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284-299면.
- 류성기, 『초·중·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이정, 2916, 155-227면.
- 이태영,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2011, 427-451면.

### □ 논문

- 류성기, 「표준어와방언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산청 방언 문법 현상 연구」, 『방언학』 제18호, 한국방언학회, 2013, 289-324면.
- 류성기, 「표준어 간섭 및 방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한 경남 함양 방언 문법 형태 변화 연구」, 『배달말』 제55집, 배달말학회, 2014, 55-92면.
- 류성기, 「경남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및 의식 변화에 따른 문법 형태 사용 변화 연구」, 『국제언어문화』 제 33호, 국제언어문화학회, 2016, 1-37면.
- 소강춘, 「남원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조형순, 「전북 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연구-남원지역어를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63면.
- 금란, 「전북 방언과 전남 방언의 차이」, [http://blog.daum.net/\\_blog/hdn/](http://blog.daum.net/_blog/hdn/), 2011.
- 한국학 연구원, 「남원의 방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 2016.

이 논문은 2017년 6월 28일 접수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받아 8월 18일 게재 확정됨.